

# 『三國遺事』 석굴암 창건기록의 미술사적 타당성 검토

한 정 호\*

## 〈목 차〉

- I. 머리말
- II. 『삼국유사』 大城孝二世父母條의 분석
- III. 『삼국유사』에 인용된 <鄉傳>의 사료적 객관성
- IV. 동아시아 불교조각의 변화와 석굴암 불상조각
- V. 석굴암 불상조각의 보수적 경향
- VI. 맺음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석굴암 불교조각이 8세기 중엽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서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석굴암 불교조각이 8세기 중엽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 설정된 근본적인 원인은 13세기 말에 편찬된 『삼국유사』의 불국사 창건기록을 석굴암 창건과 동일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석굴암 관련 기록은 찬자인 일연조차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지 않았던 <향전>을 바탕으로 기술된 기록이며, 분석결과 고려시대 점찰신앙을 배경으로 형성된 설화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불국사서석탑중수기>는 불국사 창건시기를 天寶 元年(742)으로 기록하여 그동안 불국사 창건과 동일시하던 석굴암 창건시기를 더 올려볼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신장상전과 감은사지 석탑 금동사리외함의 사천왕상, 월지 출토 금동삼존판불 등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의 통일신라 불교조각은 중국과 일본의 동시기 도상이나 표현양식과 큰 시차 없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

이 논문은 2012년 동국대학교 신입교원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속에서 유독 8세기 중엽 석굴암 조각에 이르러 큰 연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축적된 석굴암 불교조각에 대한 미술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분석한 결과 8세기 중엽 중국과 일본의 불교조각에 비해 도상과 양식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보수적이라는 개념은 제작시기가 명확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삼국유사』의 석굴암 관련 기록과 석굴암 조각양식을 분리시켜 접근한다면 석굴암 조각의 보수적인 경향은 보편적인 시대양식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석굴암 불교조각이 8세기 중엽 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서의 타당성과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석굴암 창건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석굴암, 불국사, 향전, 김대성, 大城孝二世父母

---

## I. 머리말

미술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문헌사료의 중요성은 선사시대 미술연구의 한계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다. 울산의 천전리 암각화의 연구 성과를 예로 든다면 청동기시대에 새겨졌다는 공통된 의견만 있을 뿐, 암각화의 제작배경이나 작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제시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대 미술작품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은 한낱 감상의 대상에 머물고 말지도 모른다.

미술사연구의 시작은 작품의 제작시기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미술사에서는 양식사적 비교편년에 의해 작품의 제작시기를 판단하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양식비교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 존재해야한다. 비교편년의 기준이 되는 작품을 흔히 基準作이라고 하는데, 기준작의 전제조건은 제작시기가 작품에 명기되어 있거나 작품의 제작과 연관된 신뢰할 만한 기록을 보유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작의 설정은 기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준작의 설정을 전적으로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물질자료와 달리 기록은 상황에 따라 왜곡되거나 윤색될 수도 있고, 후대에 가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에 銘文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작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사료인가에 대한 엄정한 사료적 비판이 선행되어야한다. 일례로 일본 호류지(法隆寺) 금당의 금동약사여래좌상 광배의 뒷면에는 스이코천황(推古天皇)과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요메이천황(用明天皇)의 유언에 따라 607년에 조성했다는 명문이 있다. 하지만 일본 학계에서 이 불상을 7세기 초의 기준작으로 거론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명문의 서체와 조각양식 및 제작기법 분석을 통해 이 불상이 670년 호류지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 재건되면서 새롭게 조성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sup>1)</sup> 이러한 사례는 기준작의 선정을 위해서 작품과 관련기록에 대한 엄격한 사료의 비판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불교미술사에서 석굴암은 8세기 중엽 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연대가 확인되지 않은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품은 석굴암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제작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일

<sup>1)</sup> 高田良信, 『法隆寺金銅佛の由來』, 『日本・韓國の古代佛教彫刻 : 金銅佛』, 東北電力株式會社, 1999, 22~23쪽.

반적이다. 그러나 석굴암이 8세기 중엽의 기준작으로 설정된 근본적인 원인은 13세기 말에 편찬된 『三國遺事』 권제5, 孝善 제9 大城孝二世父母條의 天寶 10년(751) 불국사 창건기록에 근거한다.

본 논문에서는 『삼국유사』의 석굴암과 관련된 기록과 그동안 축적된 석굴암 불교조각에 대한 미술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과연 석굴암 불교조각이 8세기 중엽 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삼국유사』 大城孝二世父母條의 분석

『삼국유사』 권제5 효선편에 실려 있는 大城孝二世父母條는 석굴암 창건에 관한 最古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석굴암 창건배경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 기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sup>2)</sup> 대성효이세부모조는 <鄉傳>과 불국사에 전래되던 <寺中記>를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내용의 많은 부분은 <향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크게 모량리의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대성이 흥륜사 육륜회에 받을 시주한 공덕으로 국상 김문량의 집에 환생한 이야기와 장성 후 장수사, 불국사, 석불사의 창건, 그리고 <사중기>를 인용한 불국사 창건에 관한 내용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대성효이세부모조의 기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료로서의 가치를 검토할 것이다.

### (A) 大城孝二世父母 - 神文

牟梁里(浮雲村이라고도 한다.)의 가난한 여인 慶祖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는 크고 이마가 평평하여 城과 같으므로 大城이라 이름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생활할 수 없었으므로 부자 福安의 집에 고용살이를 하여 그 집에서 약간의 받을 받아 衣食의 비용으로 삼았다. 그때 開士 漸開가 六輪會를 興輪寺에서 베풀려고 하여 시주를 얻고자 福安의 집에 왔다. 福安이 배 50필을 보시하니, 점개가 축원하여 말하기를, “檀越이 보시를 좋아하니 天神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며, 하늘을 보시하여 만 배를 얻고 안락하여 장수하소

<sup>2)</sup> 김영태, 『신라 석불사 창건연기설화 考』, 『석굴암연구회지』1, 1991 ; 김상현, 『석굴암에 관한 문헌자료의 검토』, 『정신문화연구』15, 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67~83쪽 ; 신영훈, 『석불사 석실금당 구조론』, 『정신문화연구』15, 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33~51쪽.

서”라고 하였다.

대성이 이를 듣고 뛰어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는 분명히 전생에 선업이 없어 지금 이렇게 곤궁한 것인데, 지금 또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는 더욱 곤란할 것이니, 제가 고용살이로 얻은 쌀을 법회에 보시해서 뒷날의 응보를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어머니는 말하기를, “좋다”고 하였다. 이에 그 쌀을 접개에게 보시하였다.

얼마 후 대성이 죽었는데, 이날 밤 國相 金文亮의 집에 하늘에서 외치기를, “모랑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네 집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집안 사람들이 놀라서 사람을 시켜 모랑리에 알아보니 대성이 과연 죽었는데, 죽은 날이 하늘에서 외치던 때와 같은 시각이었다. 이에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니 왼손을 쥐고 퍼지 않았다가 7일만에 났는데, 金簡子가 있어 大城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으므로 또 이것으로 이름하였고, 그 어머니를 집에 모셔와 함께 봉양하였다.<sup>3)</sup>

위 기사의 제목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경덕왕대가 아닌 신문왕대로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두 개의 독립된 설화가 김대성을 매개로 합쳐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견해<sup>4)</sup>와 『佛國寺史蹟』의 서술과 같이 대성의 전생이 신문왕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sup>5)</sup> 그러나 후자의 해석은 설화에 대한 지나친 역사적 해석이라는 느낌이 든다. 민간에 전승되는 설화는 사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스토리 자체의 흥미와 사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김대성이 경덕왕 때 中侍였다는 사실이 생략된 것을 보더라도 설화는 스토리 전개에 불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설화적 입장에서 본다면 내용이 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느 왕대이건 크게 상관이 없다.

3)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牟梁里(一作浮雲村)之貧女慶祖有兒 頭大頂平如城 因名大城 家窘不能生育 因役備於貨殖福安家 其家依田數畝 以備衣食之資 時有開士漸開 欲設六輪會於輿輪寺 勸化至福安家 施布五十疋 開咒願曰 檀越好布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樂壽命長 大城聞之 跳躍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偈 云施一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茲困賈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備田於法會 以圖後報何如 母曰善 乃施田於開 未幾城物故 是日夜 國宰金文亮家 有天唱云 牟梁里大城兒 今託汝家 家人震驚 使檢牟梁里 城果亡 其日與唱同時 有娠生兒 左手握不發 七日乃開 有金簡子彫大城二字 又以名之 迎其母於第中兼養之…(『三國遺事』卷5, 孝善, 大城孝二世父母條)이하 번역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강인구 외, 『譯註三國遺事』4, 이희문화사, 2003, 378~382쪽의 내용을 전재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였다.

4) 최병현, 『석굴암에 관한 문헌자료의 검토에 대한 논평』, 『석굴암의 제문제』 발표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09~110쪽.

5) 김상현, 앞의 논문, 68쪽.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의 기사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설화라는 사실이다. 이야기 속의 인물로 대성의 어머니인 慶祖와 부자 福安, 승려 漸開를 등장시켰는데 ‘경사스러운 조상’, ‘복 많고 평안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조와 복안은 실존인물이라기 보다는 설화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작위적인 작명으로 보인다. 흥륜사의 승려로 그려진 漸開, 또한 승려의 범명으로는 생경한 이름으로 대성을 보시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이야기의 발단을 제시하는 역할에 맞게 설정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등장인물 가운데 실존 인물은 金大城과 金文亮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경덕왕대의 중시를 역임한 金大正과 성덕왕 때 중시였던 金文良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sup>6)</sup> 대성의 현세부모로 언급된 김문량은 『三國史記』에 “성덕왕 5년(706) 8월 대아찬 文良을 中侍로 삼았다.”는 기록과 이후 “성덕왕 10년(711) 10월 이때 중시 문량이 죽었다.”는 기록을 통해 활동시기를 알 수 있다.<sup>7)</sup> 그리고 김대성(김대정)은 경덕왕 4년(745)에서 중시에 올랐다가 경덕왕 9년(750)에 관직에서 물러났다.<sup>8)</sup>

물론 설화라고해서 모든 내용을 허구로 치부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설화는 실화를 토대로 윤색되거나 각색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화에 사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설화가 형성된 시점과 기저에 깔려있는 설화의 형성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위의 기사에서 등장인물을 제외하고 설화의 형성시기와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는 승려의 異稱으로 사용된 開士와 六輪會를 주목할 수 있다. 開士는 원래 불교경전에서 菩薩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개사가 보살에 대한 지칭에서 고승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된 용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 금석문자료 중 가장 이른 사례는 896년 최치원이 찬한 승복사비가 확인되었다<표1 참조>.

현재 승복사비에 보이는 開士는 “...經을 몸에 지니는 보살과 寺務의 대강을 맡은 청정한 승려가 좋은 田地로써 공양과 보시에 이바지하였는데...”로 번역하여 고승이 아닌 보살로 번역되고 있다.<sup>9)</sup>

6) 이기백, 『신라 執事部の 성립』,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2002, 168~169쪽.

7)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8)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9.

9) 정병삼, 『승복사비』, 『여주 한국고대금석문』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5, 272쪽.

표 1. 開士의 용례

연번	출 처	내 용	연 대
1	崇福寺碑	“…先朝所建鵠寺宜易勝爲大崇福其持經 開士提綱淨吏南畝以資供施一依奉恩故 事…”	896년
2	大安寺廣慈大師碑	“…銘曰偉哉開士了達眞筌法門杳杳至理 玄玄…”	950년
3	太子寺朗空大師碑	“…若非哲人出世開士乘時高演眞宗廣宣 善誘何以爰重玄之禮得歸衆妙之門…”	954년
4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	“…警句之愈工被鉅孺之寡和湯開士碧雲 雅作豈是壤奇…”	1085년
5	蔡洪哲墓誌銘	“…公於文章技藝皆極其精而尤深於釋教 至論其道雖稱開士公片言折之苟無所見烏 能如…”	1340년

그러나 이어지는 ‘절의 업무를 관장하는 승려’와 대비를 고려하면 ‘경을 몸  
에 지니는 승려’, 즉 수행에 힘쓰는 고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開士가 보살에 대한 호칭에서 고승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뀐 것은 선종의 영향으  
로 추정되는데, 이후 開士가 고승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된 용례들은 <표 1>과  
같이 모두 고려시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야기의 발단은 승려 접개가 흥륜사 육륜회에 시주를 勸善하는 것  
에서 시작된다. 접개가 말한 보시에 대한 공덕으로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얻게 된다.”는 ‘만 배 이익’ 역시 『釋迦如來行蹟頌』의 “봄에 한 알의 씨를 뿌리  
면, 가을에 만 알의 열매를 거둔다.”와 같이 고려시대 후기 불교계에서 주로 등장  
한다.<sup>10)</sup>

한편 六輪會는 점찰참회법의 일종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육륜회라는 용례  
는 본 자료가 유일하다. 원래 육륜법은 점찰참회법의 중심을 이루는 의식으로서  
그 앞뒤에 죄업의 참회와 예배·명상 등을 곁들여서 매우 엄숙한 법회가 되도록  
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이 육륜법의 점괘에만 중심을 두어 점찰법회가 육륜회로  
격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1)</sup> 육륜회는 세 종류의 점찰법 가운데 6개의 木輪을  
사용하는 6륜상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6륜상법은 숫자가 기입된 6개의

10) 남동신, 『大城孝二世父母條에 보이는 孝와 善』,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79쪽.

11) 홍윤식, <육륜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96쪽.

목륵을 던져 나오는 숫자에 따라 三世 중에 받아야 할 선악을 점찰하는 것으로 전세와 현세로 이어지는 김대성의 윤회와 연결된다. 그리고 보면 대성이 흥륵사의 윤회회에 보시한 결과 國相 김문량의 집에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가 대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등장시킨 7일이라는 기한과 金簡子是 고려시대에 유행한 점찰신앙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토함산에서 행했던 살생에 대한 참회와 회향의 의미를 담은 장수사, 불국사, 석불사의 창건 역시 점찰신앙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향전>에서 인용한 김대성 설화는 고려시대 점찰신앙을 배경으로 형성된 설화일 가능성이 크다.

(B) 이미 장성하자 사냥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吐舍山에 올라가서 꿈 한 마리를 잡고 산 밑 마을에서 잤다. 꿈에 꿈이 귀신으로 변하여 책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도리어 너를 잡아먹겠다.”고 하니, 대성이 두려워서 용서해주시기를 청하였다. 귀신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절을 짓겠느냐?”고 하니 대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깨어 보니 땀이 흘러 요를 적셨다. 그 뒤로는 사냥을 금하고 꿈을 위하여 長壽寺를 꿈 잡았던 곳에 세웠다. 이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자비의 원력이 더욱 두터워 이승의 양친을 위하여 佛國寺를 세우고, 전세 부모를 위하여 石佛寺를 세워 神琳, 表訓 두 聖師를 청하여 각각 거주하게 하였다. 불상의 설비를 크게 펴서 양육한 수고를 갚았으니 한 몸으로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적에도 듣기 드문 일이다. 착한 보시의 영험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장차 石佛을 조각하려고 큰 돌 하나를 다듬어 감실의 뚜껑(龕蓋)을 만들다가 돌이 갑자기 세 쪽으로 깨졌다. 대성이 분해하다가 잠들었더니, 밤중에 천신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대성이 막 일어나 남쪽 고개로 쫓아가 향나무를 태워 천신을 공양하였다. 이로써 그곳을 香嶺이라고 하였다. 불국사의 雲梯와 석탑은 돌과 나무를 조각한 기공이 東都의 여러 절 가운데 이보다 나은 것은 없다.<sup>12)</sup>

이어지는 장수사, 불국사, 석불사의 창건은 신앙적으로 회향의 의미를 담고

12) …既壯 好遊獵 一日登吐舍山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 詎曰 汝何殺我 我還啖汝 城怖懼請容赦 鬼曰 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 諾 既覺 汗流被蓐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願增篤 乃爲現生二親 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焉 茂張像設 且酬鞠養之勞 以一身孝二世父母 古亦罕聞 善施之驗 可不信乎 將彫石佛也 欲鍊一大石爲龕蓋 石忽三裂 憤恚而假寐 夜中天神來降 畢造而還 城方枕起 走跋南嶺 爇木以供天神 故名其地爲香嶺 其佛國寺雲梯石塔 彫鏤石木之功 東部諸刹未有加也 古鄉傳所載如上…(『三國遺事』卷5, 孝善, 大城孝二世父母條)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인물에 의해 세 사찰이 동시기에 건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동일 발원자에 의해 인근에 창건된 사찰이라면 세 사찰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앞서서 석가탑 발견 중수문서 가운데 1024년에 작성된 <무구정광탑중수기>에는 여러 사찰의 승려들이 동참하지만 장수사와 석불사의 승려들이 관여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038년에 작성된 <서석탑중수기>에 여러 사찰의 시주품목을 거명하는 가운데 석불사의 승려 彦應이 공 4斗를 시주했다는 정도로 기록되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는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sup>13)</sup>

위의 기록대로라면 김대성이 창건한 세 사찰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된 사찰은 장수사이다. 불국사 다보탑 중수기록에 해당하는 <무구정광탑중수기>에 석탑을 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석재를 장수사 근처에서 옮겨왔다는 기록으로 볼 때, 장수사가 불국사 인근에 위치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장수사지로 추정되는 마동사지에는 9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이 남아있다. 이 절터가 장수사지인지 불분명하고, 석탑이 후대에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세 사찰이 동시기에 건립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석굴암 건립 당시 세 조각으로 파손된 천개석을 천신의 도움으로 완성했다는 내용은 김대성이 석굴암을 창건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엽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장차 석불을 조각하고자 하여(將彫石佛也)’라는 대목은 석굴암 축조과정과 차이가 있다. 구조적으로 석굴암은 본존불을 먼저 봉안한 상태에서 석실 축조가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sup>14)</sup> 그리고 천개석이 세 조각으로 쪼개진 상태로 시설되었다는 점도 엄정한 불교의 장엄법식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天蓋는 불상의 하부를 장엄하는 대좌와 배경을 장엄하는 광배와 더불어 불상의 상부를 장엄하는 중



도 1. 석굴암 해체수리 장면

13) 노명호·이승재,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판독 및 역주』, 『불국사 석가탑 유물2: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 2009, 86쪽.

14) 신영훈, 앞의 논문, 1992, 37~38쪽.

요한 장엄구이다. 더구나 석굴암의 천개석은 석실장엄의 정점이기 때문에 만약 천개석이 설치되기 전에 깨졌다면 다시 만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일제 강점기 석굴암 수리 당시 전면해체공사였음에도 천개석만은 철테를 둘러 고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조각난 상태의 천개석을 올려놓는 작업이 석실의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도 1). 따라서 천개석과 관련된 설화는 석굴암 창건 이후 어느 시점에서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개석에 금이 간 상태에서 파생된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5)</sup>

(C) 옛 鄉傳에 기재된 것은 이상과 같으나, 절의 기록에는 『景德王 때 大相 大城이 天寶 10년 辛卯(751)에 처음으로 불국사를 세우다가 惠恭王 때를 지나 大歷 9년 甲寅(774) 12월 2일 대성이 죽자 나라에서 이를 완성하였다. 처음에는 瑜伽의 大德 降魔를 청해 이절에 거주하게 했으며, 그를 계승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여 古傳과 같지 않으므로 어느 것이 옳은지 자세히 알 수 없다.<sup>16)</sup>

끝으로 불국사에 전래되던 <사중기>를 인용한 위의 기록은 석굴암 창건시기를 천보 10년(751)으로 상정하는 근거로 인용되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석가탑에서 발견된 <중수문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향전>을 전거로 작성된 전반부의 내용에 비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이 기록은 어디까지나 불국사 창건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기록상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을 동일시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석가탑에서 발견된 <중수문서>에도 김대성이 불국사 개창 이후 끝내지 못하고 물러나자 혜공왕대에 마무리했다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위의 기사가 불국사 창건에 국한된 기록임을 뒷받침한다.

위 기록의 말미에서 찬자 일연은 “古傳(=향전)과 같지 않으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을 유보하였다. <향전>과 <사중기>의 내용을 비교하면 찬자가 ‘서로 같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적 배경을 <향전>에서는 신문왕대라고 한 것

<sup>15)</sup> 김상현, 앞의 논문, 70쪽; 김기홍, 『깨어진 석굴암의 천개석』, 『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393쪽.

<sup>16)</sup> …而寺中有記云 景德王代 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卯始創佛國寺 歷惠恭世 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乃畢成之 初請瑜伽大德降魔住此寺 繼之至于今 與古傳不同 未詳孰是(『三國遺事』卷5, 孝善, 大城孝二世父母條)

과 달리 <사증기>에는 경덕왕대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둘째, <향전>의 경우 불국사 창건 후 神琳을 초청하여 주석하게 했다고 하였으나 <사증기>에는 瑜珈大德 降魔를 주석하게 했다고 기록하였다. 셋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아니지만 <향전>에는 김대성이 장수사, 석굴사,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한 것과 달리 <사증기>에는 김대성이 불국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김대성이 불국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사실은 불국사 창건 후 神琳을 초청하여 주석하게 했다는 <향전>의 기록과도 모순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 참고했던 <사증기>에는 장수사나 석굴암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광범위한 사료 수집과 비교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삼국유사』의 서술방식으로 볼 때, 만약 당시 불국사의 기록에 석굴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면 병기하여 고증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향전>의 설화를 전거로 한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은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역사적 인물로 夫子가 모두 中侍를 역임했던 김문량과 김대성이 석굴암과 불국사 창건과 연관된 설화의 원천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는 석굴암의 구체적인 창건 시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석굴암 창건 시기가 751년으로 고착된 원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불국사 창건과 동시에 석굴암이 창건되었다고 이해한 결과이다. 그러나 설령 석굴암과 불국사가 김대성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규모의 사찰조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사찰이 동시에 건립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석굴암이 완공된 이후 불국사 창건에 착수했다는 견해에 공감이 간다.<sup>17)</sup> 그리고 불국사 창건에 앞서 석굴암이 완공되었다는 시각에서 최근 공개된 <불국사서석탑중수기>의 다음 기록은 석굴암 창건시기를 더 올려볼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

…앞의 탑을 중수한 일은 신라 제35대 경덕대왕의 第一相公인 大城角干이 왕이 즉위한 天寶 원년 壬午년부터 개창□□하신 일이 있으나 끝내지 못한 채 물러나시므로 태자인 혜공대왕의 □□□□ 끝내어 만들어 세우신 일이 있었거늘…<sup>18)</sup>

17) 신영훈, 앞의 논문, 34쪽.

18) 노명호·이승재, 앞의 논문, 66~67쪽. “…右塔重修向事之段新羅第三十五代 景德大王矣第一相公大城角干亦王矣則位天寶元年壬午元開創□□教事是在亦未畢爲教第亦中退教在等以太子

위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사중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지만 불국사 창건 시점을 天寶 10년보다 10년 앞선 천보 元年(742)으로 기록하였다. <불국사서석탑중수기>는 『삼국유사』보다 약 250년 정도 앞선 기록으로 사료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불국사 창건에 앞서 석굴암이 완공되었다는 견해를 적용하면 석굴암은 742년 이전에 완공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불국사 창건 시점이 1038년에 기록된 <불국사서석탑중수기>의 742년과 『삼국유사』에 인용된 <사중기>의 751년으로 다르게 나타난 원인은 불국사의 창건이 경덕왕의 즉위와 연관된 왕실사찰에서 점차 김대성 중심의 사찰로 윤색되었음을 반영한다. <사중기>에 기록된 천보 10년은 김대성이 중시에서 물러난 이듬해로 이때 불국사가 창건되었다고 한다면 불국사는 왕실사찰이 아닌 김대성 개인발원의 사찰로 둔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고려 후기에 이르러 김대성의 위대성이 제고되면서 불국사의 창건이 김대성이라는 인물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불국사 인근에 위치한 장수사, 석불사 등도 김대성의 일대기에 가탁되어 설화의 소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삼국유사』에 인용된 <鄉傳>의 사료적 객관성

『삼국유사』는 금석문, 고문서, 전적뿐만 아니라 찬자 자신이 현장 답사를 통한 관찰과 탐문한 내용 등 수많은 자료를 집대성한 사서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의 사료로서의 신빙성이나 객관성은 전체를 거론하기 이전에 인용된 사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석굴암 창건과 관련된 최고의 기록에 해당하는 『삼국유사』 대성효이세부모조는 <향전>과 <사중기>라는 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자료의 사료적 가치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성효이세부모조의 내용 가운데 석굴암의 창건에 관한 기록은 오직 <향전>을 인용한 대목에만 등장한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석굴암 창건기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삼국유사』에 빈번하게 인용된 <향전>의 성격과 사료로서의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전>은 『삼국유사』 전체에 걸쳐 빈번하게 인용되는 서목이다. <향전>과 유사한 용례로 사용된 <古記>, <別傳>, <俗傳>, <古傳>, <諺傳>, <鄉

是賜 惠恭大王矣□□□已訖成立爲敎事是在乙...

言>, <鄉記>, <俗言> 등과 구별이 모호하여 일연 특유의 편의적인 용어일 가능성이 높다. 『삼국유사』에 <향전>이 인용된 대목을 분석한 결과 그것이 민간에 회자되는 구전물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sup>19)</sup>

<향전>이 특정 書名이 아니라 凡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삼국유사』 권1의 太宗春秋公條에서 <新羅古傳>을 <향전>으로 지칭한 사례와 권3의 南白月二聖努盼夫得 恒恒朴朴條에서 <鄉中古傳>을 다시 인용하며 <향전>이라 표기한 용례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향전>이 대명사로 통칭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단서는 권4의 圓光西學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조에서는 古本 <殊異傳>을 거듭 인용하면서 <향전>이라 지칭하였다. 이상과 같이 『삼국유사』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향전>은 특정 전적이 아니라 민간에 전래되었던 이야기를 수록한 기록물의 대명사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료와 구분되는 <향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鄉’을 중국과 구별해서 신라를 지칭하는 뜻으로 보고, 신라 안에서 기록된 사료를 폭넓게 含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sup>20)</sup>와 사찰 또는 승려 등과 대칭되는 의미를 지닌다는 의견이 있다.<sup>21)</sup>

『삼국유사』 전체를 통틀어 <향전>을 인용한 기사는 일곱 조목이 확인된다. 그러나 내용의 유사성을 따지고 보면 출전을 밝히지 않았을 뿐, 보다 많은 조목에 <향전>의 설화가 인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먼저 <향전>이라는 용어로 인용된 일곱 조목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太宗春秋公條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조목이 불교신앙과 관련된 영험이나 神異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설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전>은 민간전승의 설화를 채록한 여러 가지 기록물에 대한 통칭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향전>소재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삼국유사』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에 전승되는 설화는 사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흥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설화는 이야기 중심의 흥미 있고 자극적인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중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윤색되기 마련이다.

19) 김승호, 「<鄉傳>을 통해서 본 신라 민중설화의 양상」, 『고전소설연구』5, 한국고소설학회, 1998, 301~302쪽.

20) 앞의 논문, 311쪽.

21) 이소라, 「삼국유사의 향전 수용 양상」, 『태릉어문연구』14,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 4쪽.

『삼국유사』를 편찬함에 있어 광범위한 사료 수집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일연 역시 <향전>의 역사적 신빙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일연의 입장은 <향전>을 인용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향전>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가) 『三國遺事』卷1, 紀異, 太宗春秋公

…<新羅古傳>에는 이렇하다. “소정방이 이미 고구려·백제 두 나라를 토벌하고 또 신라마저 치려고 머물러 있었다. 이때 庾信이 그 뜻을 알아채고 당나라 군사를 초대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고는 모두 쓸어 묻었다. 지금 尙州 지경에 唐橋가 있는데 이것이 그들을 묻은 곳이다.” <唐史>를 상고하건대 그 죽은 까닭은 말하지 않고 다만 죽었다고만 했으니 무슨 까닭인가. 감추기 위한 것인가. <鄉傳>이 근거가 없는 것인가. 만일 壬戌년 高句麗 싸움에 신라 사람이 定方의 군사를 죽였다면 그 후일인 總章 戊辰에 어찌 군사를 청하여 高句麗를 멸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으로 보면 <鄉傳>이 근거 없음을 알 수가 있다.…<sup>22)</sup>

나) 『三國遺事』卷3, 塔像,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恒桓朴朴

…<鄉傳>에는 雉山村이라 했으나 잘못이다.…<鄉傳>에는 夫得은 산 북쪽 瑠璃洞에 살았으니 곧 지금의 板房이요, 朴朴은 산 남쪽 法精洞 磊房에 살았다고 했으니 이 기록과는 서로 반대된다. 지금 와서 보면 <鄉傳>이 잘못되었다.…<sup>23)</sup>

다) 『三國遺事』卷4, 意解, 慈藏定律

…<鄉傳>에 보면, 慈藏이 唐나라에 갔더니 太宗이 式乾殿에 맞아들여 華嚴經의 강의를 청하매, 하늘이 단 이슬을 내려 비로소 그를 國師로 삼았다고 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唐傳>이나 <國史>에 모두 그런 글은 없다.<sup>24)</sup>

22) “…又新羅古記云 定方既討麗濟二國 又謀伐新羅而留連 於是庾信知其謀 饗唐兵鳩之 皆死坑之 今尙州界有唐橋 是其坑也(按唐史 不言其所以死 但書云卒何耶 爲復諱之耶 鄉諺之無據耶 若壬戌年高麗之役 羅人殺定方之師 則後總章 戊辰何有請兵滅高麗之事 以此知鄉傳無據…” 이하 본 논문의 『삼국유사』 번역문은 이진수 역본의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4를 참조하였다.

23) “…鄉傳云雉山村 誤矣 二土之名方言 二家各以二土心行騰騰苦節二義名之爾…鄉傳云 夫得處山北[瑠璃洞 今板房 朴朴居山南法精洞磊房 與此相反 以今驗之 鄉傳誤矣…”

24) “…鄉傳云 藏入唐 太宗迎至武乾殿 請講華嚴 天降甘露 開爲國師云者妄矣 唐傳與國史皆無文…”

라) 『三國遺事』卷5, 感通, 郁面婢念佛西昇

의론해 말한다. 고을 안의 <古傳>을 살펴보면, 郁面은 바로 경덕왕 때의 일이다. 徵(필경 珍인 듯싶다. 아래도 역시 같다.)의 本傳에 의하면 이는 元和 3년 戊子 哀莊王 때의 일이라 했다. 경덕왕 이후에 惠恭王·宣德王·元聖王·昭聖王·哀莊王 등 5대까지는 도합 60여 년이나 된다. 貴徵이 먼저이고 郁面이 뒤이기 때문에 그 선후가 <鄉傳>과 어긋난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실어서 의심이 없게 한다.<sup>25)</sup>

마) 『三國遺事』卷4, 意解, 圓光西學

…위와 같이 <唐傳>과 <鄉傳>의 두 傳記에 있는 글에 따르면, 그의 성은 朴과 薛로 되었고, 出家한 것도 동쪽과 서쪽으로 되어 있어 마치 두 사람 같으니, 감히 자세하고 명확하게 결정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전기를 모두 적어 둔다.…<sup>26)</sup>

이상에서 제시한 『삼국유사』에 인용된 <향전>에 대한 찬자 일연의 고증은 대체로 오류를 지적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일관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향전>에 실린 설화에 대한 『삼국유사』의 수용 태도는 승려라는 일연의 신분적 입장을 반영한다. 즉 불교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영험담이라는 측면에서 <향전>의 내용을 존중했지만,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객관적 사료로서의 가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따라서 <향전>소재 설화에 입각한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 IV. 동아시아 불교조각의 변화와 석굴암 불상조각

7세기 중엽 중국의 불교미술은 새로운 불교도상의 유입으로 전환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변화의 발단은 645년 인도 순례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온 玄奘의 귀국에서 시작된다. 현장은 불교 교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그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여러 존상들은 당시 불교미술의 도상과 양식 변화에 큰 반향을

25) “…議曰 按鄉中古傳 郁面乃景德王代事也 據徵(徵字疑作珍 下亦同)本傳 則元和三年戊子 哀莊王時也 景德後歷 惠恭 宣德 元聖 昭聖 哀莊等五代 共六十餘年也 徵先面後 與鄉傳乖違 然兩存之 闕疑…”

26) “…據如上唐鄉二傳之文 但姓氏之朴薛 出家之東西 如二人焉 不敢詳定 故兩存之…”

불러일으켰다. 현장의 귀국을 통해 대두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도상이 바로 석굴암 본존상과 같은 편단우견의 항마촉지인상이다. 그가 인도 순례 중에 기술한 『大唐西域記』에는 석가의 성도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리사의 成道像에 대해 자세, 수인, 좌향, 크기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현장의 귀국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도상의 수용은 이후 당 태종의 勅使였던 王玄策이 쓴 旅行記에서도 확인된다. 여행기는 성도상에 대해 『대당서역기』와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왕현책은 동행했던 송법지로 하여금 상을 그리게 하여 장안으로 가져왔고, 이를 승려와 俗人들이 모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져온 이러한 도상을 모아서 658년에 10권의 책으로 출간하였고, 666년에는 칙령에 의해 工匠과 百官, 學士들이 참여하여 畫卷 40권을 포함한 『西國志』 100권을 만들었다.<sup>27)</sup> 당시 인도 구법승들에 의해 유입된 신앙식의 불상과 이를 바탕으로 간행된 도상집은 당대 불교조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고, 이러한 변화는 신라와 일본의 건당사와 유학승들에 의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다.



도 2 중국 장안 대자은사 대안탑지 출토 소조압출 불상, 당, 650~670년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장의 활동 중심지였던 西安 慈恩寺 大雁塔 일대에서 발견된 다량의 善業泥 불상이다(도 2). 선업니 불상은 봉헌소조불의 일종으로, 본존은 편단우견의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어 마하보리사의 成道像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재료가 소조인 점과 일부 선업니 불상의 뒷면에 “印度佛像大唐蘇常侍普同等共”, “大唐善業泥壓得眞如妙色身”이라는 명문이 있어 香泥인 소조로 조성되고 妙相이라고 불렀던 인도 마하보리사 정각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27) 김리나, 『石窟庵 佛像群의名稱과樣式에관하여』, 『정신문화연구』15, 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8~9쪽; 『韓國古代佛教彫刻比較研究』, 문예출판사, 2003, 288쪽; 배진달,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250쪽.

현장 당시에 제작된 선업니 불상은 곧바로 일본으로 전파되어 크게 유행한다. 阿彌陀谷廢寺나 穴太廢寺 등 주로 7세기 후반의 절터에서 발견되는 일본의 전불은 처음에는 선업니 불상의 원본을 범본으로 제작되다가 점차 변화가 나타난다. 일본에 선업니 불상을 전래시킨 인물로는 白雉 4년(653)의 遣唐使로 갔다가 齊明 6년(660)에 귀국한 道昭와 그와 함께 입당한 定慧가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선업니 불상이 일본에 전래된 시기는 660년경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의 새로운 문화가 얼마만큼 빠르게 확산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밖에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로 추정되는 藥師寺 약사삼존상과 8세기 초에 조성된 호류지 오층목탑 소조상을 비롯한 금당벽화와 금동아미타삼존판불 등은 중국에서 새롭게 정립된 조각양식과 도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중국의 자은사 대안탑 일원에서 발견되는 선업니 불상과 동일한 형식은 아니지만 7세기 후반 양지스님에 의해 조성된 석장사지 탑상문전을 통해 영향관계를 엿볼 수 있다. 석장사지 탑상문전은 양지가 조성했다는 벽돌로 만든 삼천불탑의 부재로 탑과 불상이 번갈아가면서 새겨져 있다. 석장사지 탑상문전에는 다양한 불상 도상이 등장하여 중국에 유입된 새로운 도상이 신라에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석장사지 탑상문전에 새겨진 불상 중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7세기 후반의 새로운 도상을 대표하는 편단우견의 항마촉지인상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范과 완성분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인지 항마촉지인과 편단우견이 반전된 상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석장사지 탑상문전은 이러한 신도상의 표현 뿐 만 아니라 재료가 소조인 점이나 탑과 불상이 배열된 장엄조식, 그리고 연기법송을 법사리로 새긴 진흙판을 봉안하는 법식 등 전반적으로 인도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은 현장과 관련된 선업니 불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sup>28)</sup>

또한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신장상전과 감은사지 석탑 금동사리외함의 사천왕상, 월지 출토 금동삼존판불 등은 삼국시대의 표현수법이나 조형감을 벗어난 작품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동시기 표현양식과 큰 시대적인 차이가 없어 7세기 후반 중국의 신문화가 신속하게 신라에 전래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sup>29)</sup> 아울러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광명최승왕경』이 통일신라에 유입되는 시기를 통해서도 당시 문물의 유입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4년 彌陀山에 의해 번역된 이후 불과 2년 후인 706년에 통일신라

28) 배진달, 앞의 책, 255쪽.

29) 김지현, 『慶州 錫杖寺址 博佛 研究』, 『미술사학연구』266, 2010, 한국미술사학회, 42~44쪽.

30) 김리나, 『통일신라시대 전기의 불교조각 양식』, 『고고미술』154·155, 1982, 70~74쪽.

왕실발원 석탑인 구황동 삼층석탑에 납입되었다. 그리고 『금광명경최승왕경』의 경우 703년에 중국에서 번역되고 다음해인 704년에 신라에 전래된다.<sup>31)</sup> 이러한 사례들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 당과 신라 사이의 문화교류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 짐작케 한다.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석굴암 본존상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석굴암 본존상은 자세와 수인, 坐向뿐만 아니라 크기에 이르기까지 현장이 『대당서역기』에 묘사한 부다가야의 마하보리사의 정각상과 일치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sup>32)</sup> 그렇다면 왜 현장의 귀국으로부터 100여 년이 경과한 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마하보리사의 정각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석굴암이 건립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석굴암 불교조각의 도상은 통일신라시대 다른 조각에서는 흔치 않은 독특한 도상의 예가 많고, 관련된 연구에서는 예외 없이 도상적 전거로 653년경에 집성된 『다라니집경』을 거론한다. 신라에 『다라니집경』이 전래되었다는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없지만 수용가능성을 암시하는 단편적인 기록들은 이미 7세기 후반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sup>33)</sup>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석굴암 창건 시기를 8세기 중엽에 두고 본다면 『다라니집경』의 도상이 실제 신라 불교조각에 적용되는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

## V. 석굴암 불상조각의 보수적 경향

일반적으로 불상 양식의 비교연구는 동시기에 제작된 불상과의 비교를 통해 편년을 유추한다. 그러나 석굴암 불상조각의 도상이나 양식과 관련된 연구는 중국의 初唐에서 中唐 초기에 해당하는 작품과 일본의 나라시대 초기의 작품들이 비교자료로 제시되는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660년에서 730년대에 해당하는 작품과 비교되기 때문에 석굴암 조각의 양식과 도상은 복고적, 고식,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석굴암 불교조각을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에서 두드러지는데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에서 거론된 석굴암 불교조각의 보수적인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sup>34)</sup>

31) 『삼국사기』권8, 신라본기 제8.

32) 강우방, 『석불사 본존의 圖像 小考』, 『미술자료』35, 국립중앙박물관, 1984, 54~56쪽.

33)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419~424쪽.

34) 석굴암 불교조각은 전설의 금강역사상을 경계로 안과 밖이 양식적 차이를 보인다. 금강역사상

먼저 본존상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편단우견의 항마촉지인좌상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석굴암 본존상과 양식적으로 비교는 불상은 727년 편년의 중국 河北省 正定縣 花塔寺에 봉안된 대리석여래좌상과 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중국 山西省 太原 天龍山石窟 제18洞 동벽 불좌상이다.<sup>35)</sup> 특히 화답사 불상의 경우 힘 있고 탄력 있는 신체적 양감과 긴장감 있는 옷주름의 표현, 종아리 부위에서 반쯤 감싸는 옷자락 양식 등은 석굴암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천룡산석굴의 불상과 비교한 또 다른 연구로 석굴암 본존상은 720년에서 735년에 조성된 작품보다는 700년에서 711년 사이의 중국 작품들과 친연성이 강하다는 견해도 주목된다.<sup>36)</sup>

편단우견과 항마촉지인은 7세기 후반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인 도상임을 증명하듯이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조성된다. 이 시기 전후는 기존의 당 양식이라 할 수 있는 통견 혹은 이중착의법, 시무외인과 설법인의 결합을 보이는 수인 등이 꾸준히 조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작품 중에 석굴암 본존상 이전에 조성된 신라의 편단우견 항마촉지인좌상은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의 제작 연대는 8세기 초반 내지는 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이 불상이 촉지인 여래좌상의 시원형식이라는 점과 유적 주변에서 발견된 당초문 암막새의 표현양식이 안압지에서 발견된 儀鳳四年銘(679) 암막새와 흡사한 점을 근거로 680~690년대로 올려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sup>37)</sup>



도 3. 경주 석굴암 본존상 대좌,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상의 대좌는 8세기 중엽 이후의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하대가 팔각인 것과 달리 평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팔각 중대석에 기둥을

을 비롯한 전실의 팔부신장상은 석굴암 중창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sup>35)</sup> 김리나, 앞의 책, 290쪽.

<sup>36)</sup> 문명대, 『慶州 石窟庵 佛教彫刻의 比較史的 研究』, 『신라문화』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5, 103쪽.

<sup>37)</sup> 박홍국,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과 남산 칠불암마애불의 조성시기』, 『과거고고연구』4, 아주대학교박물관, 1998, 103~105쪽; 광동석, 『통일신라 석불의 寶庫, 경주 남산』,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311~312쪽.



도 4. 경주 석굴암 제석천상의 일월장식 통일신라



도 5. 경주 석굴암 문수보살상 보관의 관대 표현, 통일신라

모각하는 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기둥을 세우는 古式을 보인다(도 3). 이처럼 중대의 팔방에 별도의 기둥을 세운 방식은 6세기 후반 북제의 석불좌상에서 시작되는 형식으로 이후 7~8세기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팔각기둥에 우주를 모각하는 형식이 자리 잡고 주류가 된다.<sup>38)</sup>

범천·제석천상과 보살상에서는 보다 명확한 보수적 경향이 확인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장대하고 세장한 신체비례이다. 이러한 비례는 수와 초·성당대 보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보관의 장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보관 전면이 높이 솟은 遠遊冠과 더불어 표현되는 일월 장식은 제석천의 보관과 감실의 금강수보살에서 확인된다(도 4). 천부상과 보살상의 보관에 일월 장식 혹은 일월관을 착용하는 석불의 사례는 현재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우협시 보살과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칠곡 노석동 마애삼존불의 협시보살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석굴암 범천·제석천상 두광의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타원형 광배는 『다라니집경』에 범천·제석천상의 두광으로 언급된 ‘簸箕’의 표현으로 밝혀졌다. 이러

한 파기형 광배는 인도 굽타시대 석굴에서 자주 보이나, 중국에서는 초당대 벽화들 중의 일부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고식이다.<sup>39)</sup>

석굴암의 보살상 및 범천·제석천과 더불어 뒤에서 살펴볼 사천왕상에 이

<sup>38)</sup>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11, 285~287쪽.

<sup>39)</sup> 허형욱, 『석굴암 범천 제석천상 도상의 기원과 성립』, 『미술사학연구』246·247, 한국미술사학회, 2005, 20쪽.

르기까지 모두 긴 관대가 표현된 점이 주목된다(도 5). 보살상에 있어 관대의 표현은 고식적 요소로 삼국시대 불상과 일본 아스카시대 보살상 등에서 주로 보이지만 통일신라시대 들어선 719년 감산사 미륵보살상이나 754년~755년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의 보살상 등에서는 보살의 관대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장대의 표현과 발목 위 군의의 Ω자형 2단 주름은 8세기 대 보살상의 의습과는 다른古式에 해당한다.<sup>40)</sup> 그리고 석굴암 제석천상의 몸 앞에 늘어진 2단 천의나 하체에 장식된 풍탁형 영락장식은 8세기 중국, 일본의 나신에 가까운 상보다는 이른 시기인 초당대 7세기 돈황벽화의 보살상들과 친연성이 있다.<sup>41)</sup>

보살상의 천의표현 역시 보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지금까지 축적된 보살상의 천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삼국시대 보살상의 腹前에서 'X'자형으로 교차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후 'U'자형 혹은 이중 'U'자형의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도 6. 경주 석굴암 십일면관음보살상의 연화좌 통일신라

초기의 보살상, 중국의 수·초당대 보살상 그리고 일본 아스카시대 보살상들에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시대적 양식은 바로 천의가 연화좌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양식이 나타난다(도 6). 통일신라시대 중엽 경에 조성된 보살상의 천의는 천의의 끝이 반전되어 연화좌에 닿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길이 또한 짧게 표현된다.

본존상 후벽에 배치된 십일면관음보살상에서도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상의가 왼쪽 어깨에서 끈으로 걸쳐져서 입혀진 것이나, 천의가 몸에 두 번 걸쳐져서 늘어진 형식은 중국의 장안파 보살상에서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돈황의 벽화 중에서도 수대와 초당대에 걸쳐 조성된 보살상의 묘사에서 흔히 나타난다.<sup>42)</sup>

끝으로 사천왕상을 살펴보면 사천왕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고식요소는 갑옷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도 7). 7세기 후반 경 중국에서는 소위 서역식 갑옷이라 할 수 있는 도포식 갑옷에서 새로운 형식인 명광갑이 등장한다. 초기 두 갑옷이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8세기에 들어서면 사천왕상의 갑옷은 대부분

40) 김은화, 『토함산 석굴의 제석천상과 범천상』, 『토함산 석굴 불상』, 한국미술사연구소, 2011, 155쪽.

41) 허형욱, 앞의 논문, 26쪽.

42) 김리나, 앞의 논문, 1982, 88쪽.



도 7. 경주 석굴암 북방다문  
천왕상, 통일신라



도 8. 중국 용문석굴 경선사동 북벽  
사천왕상, 당, 661~663년

명광갑으로 정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 초기 중국과 동일하게 갑옷 양식의 혼란을 겪지만 682년 경주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의함에 새겨진 사천왕상을 통해 중국에서 정착된 명광갑이 7세기 후반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이후 탑에 부조되는 사천왕상의 갑옷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석굴암의 사천왕상은 8세기 중·후반 성행하던 갑옷을 착의하지 않고 오히려 서역식 갑옷과 명광갑이 혼재하는 초기의 양식을 보인다. 즉 감은사지 석탑 금동사리의함에 새겨진 사천왕상의 갑옷은 대표적인 명광갑으로 그 특징으로는 무릎길이의 腰甲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 용문석굴 봉선사동 북방다문천의 갑옷과 동일하다. 이러한 腰甲에 더해 요갑 아래로 보이는 군의의 날림과 복갑과 흉갑 사이의 위치에서 갑옷 위로 한 번 더 묶이는 띠의 장식은 8세기 중후반의 대표적인 갑옷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석굴암의 사천왕상 갑옷은 요갑이 허벅지 위까지의 짧은 길이를 보이며, 이와 대별되어 군의의 길이가 길게 표현된다. 이러한 사천왕상 갑옷은 용문석굴에서 661년~663년의 조성시기를 보이는 경선사동 사천왕상의 복식에서 동일성이 확인된다(도 8).<sup>43)</sup>

43) 사천왕상 복식에 대해서는 김지현, 앞의 논문, 47~49쪽 참조.

석굴암 사천왕상과 비교되는 일본의 사례로는 호류지 橘夫人廚子の 문비에 그려진 사천왕도가 주목된다. 굴부인주자의 제작 시기는 주자에 안치된 아미타삼존상과 주자 궁전부의 문비 및 수미좌에 그려진 회화의 양식을 통해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사천왕도를 비롯한 문비의 그림은 733년 주자를 개조할 당시에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개조 당시 새로 그린 것이 아니라 기존 다른 주자의 문비를 재사용한 것으로, 재사용된 문비와 橘夫人廚子は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44)</sup> 굴부인주자의 북방다문천상은 석굴암 다문천상과 자세나 보탑의 형태가 동일하여 같은 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도 9). 그리고 석굴암 사천왕상 보탑의 모양은 통일신라 불탑의 형태와는 분명히 차이를 보인다.<sup>45)</sup>



도 9. 일본 호류지 橘夫人廚子の 북방다문천왕상, 7세기 말~8세기 전반

이상에서 기존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석굴암 불교조각의 보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석굴암 창건시기를 8세기 중엽으로 본다면 석굴암 불교조각의 보수적인 경향은 중국과 일본의 유사한 도상과 양식과 비교했을 때 길게는 100년에서 짧게는 30년가량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을 통해 하나의 문제점을 도출한다면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신장상전과 감은사지 석탑 금동사리외함의 사천왕상, 월지 출토 금동삼존관불 등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의 통일신라 불교조각은 중국이나 일본의 동시기 표현양식과 큰 시차 없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왜 8세기 중엽 석굴암 조각에 이르러 큰 연대 폭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더구

44) 임남수, 『伝橘夫人念持仏厨子』, 『法隆寺美術論争の視點』, グラフ社, 1998, 301~302쪽.

45) 임영애,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3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32쪽.

나 일본에 비해 긴밀한 교류를 맺었던 당과 신라의 교류관계와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새로운 도상 및 양식의 유입과 전개가 일본의 불교미술보다도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삼국유사』의 석굴암 관련 기록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석굴암 조각양식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보수적, 고식, 복고적이라는 개념은 제작 시기가 명확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앞서 『삼국유사』의 불국사 창건기록과 동일시한 석굴암 창건시기 비정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듯이 『삼국유사』의 석굴암 관련 기록과 석굴암 조각양식을 분리시켜 접근한다면 석굴암 조각의 보수적인 경향은 보편적인 시대양식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석굴암 관련 기록과 그동안 축적된 석굴암 불교조각에 대한 미술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석굴암 불교조각이 8세기 중엽 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먼저 지금까지 석굴암 창건시기의 근거가 됐던 『삼국유사』 大城孝二世父母條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석굴암 관련 기록은 찬자인 일연조차 사료적 가치를 의심했던 <향전>을 바탕으로 기술된 기록으로 고려시대 점찰신앙을 배경으로 형성된 설화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 기록에는 석굴암 창건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굴암 창건시기를 751년으로 비정하는 것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불국사 창건과 석굴암이 창건을 동일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최근 공개된 <불국사서석탑중수기>는 불국사 창건시기를 天寶元年(742)으로 기록하여 그동안 불국사 창건과 동일시하던 석굴암 창건시기를 더 올려볼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록은 경덕왕이 즉위와 더불어 창건된 왕실사찰 불국사가 고려후기에 이르러 점차 김대성이라는 인물 중심의 사찰로 윤색되었음을 보여준다.

미술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결과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의 통일신라 불교조각은 중국과 일본의 동시기 도상이나 표현양식과 큰 시차 없이 전개되

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독 8세기 중엽 석굴암 조각에 이르러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당과 신라의 긴밀한 교류관계와 통일신라의 불교미술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새로운 도상 및 양식의 유입과 전개가 일본의 불교미술보다도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삼국유사』의 석굴암 관련 기록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석굴암 조각양식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보수적, 고식, 복고적이라는 개념은 제작시기가 명확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석굴암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이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시피 『삼국유사』의 기록과 석굴암 조각양식을 분리시켜 접근한다면 석굴암 조각의 보수적인 경향은 보편적인 시대양식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석굴암 불교조각이 8세기 중엽 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서의 타당성과 『삼국유사』의 석굴암 관련 기록을 근거로 석굴암 창건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투고일 2014년 7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6일 ■

## 참고문헌

### <사료>

『三國遺事』

『三國史記』

### <국내>

김리나, 「통일신라시대 전기의 불교조각 양식」, 『고고미술』154·155, 1982.

강우방, 「석불사 본존의 圖像 小考」, 『미술자료』35, 국립중앙박물관, 1984.

문명대, 「慶州 石窟庵 佛教彫刻의 比較史的 研究」, 『신라문화』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5.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김영태, 「신라 석불사 창건연기설화 考」, 『석굴암연구회지』1, 1991.

최병현, 「석굴암에 관한 문헌자료의 검토에 대한 논평」, 『석굴암의 제문제』 발표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김리나, 「石窟庵 佛像群의 名稱과 樣式에 관하여」, 『정신문화연구』15, 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김상현, 「석굴암에 관한 문헌자료의 검토」, 『정신문화연구』15, 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신영훈, 「석불사 석실금당 구조론」, 『정신문화연구』15, 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홍윤식, <육륜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정병삼, 「송복사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5.

김승호, 「<鄉傳>을 통해서 본 신라 민중설화의 양상」, 『고전소설연구』5, 한국고소설학회, 1998.

박홍국,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과 남산 칠불암마애불의 조성시기」, 『과기고고연구』4, 아주대학교박물관, 1998.

이기백, 「신라 執事部의 성립」,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2002.

강인구 외, 『譯註三國遺事』4, 이회문화사, 2003.

김리나, 『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 문예출판사, 2003.

배진달, 『중국의 불상』, 일지사, 2005.

허형욱, 「석굴암 범천 제석천상 도상의 기원과 성립」, 『미술사학연구』246·247, 한국미술사학회, 2005.

- 이소라, 『삼국유사의 향전 수용 양상』, 『태릉어문연구』14,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
- 곽동석, 『통일신라 석불의 寶庫』, 경주 남산,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 김기홍, 『깨어진 석굴암의 천개석』, 『역사와 현실』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 남동신, 『大城孝二世父母條에 보이는 孝와 善』,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 노명호·이승재,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판독 및 역주』, 『불국사 석가탑 유물 2 :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 2009.
- 김지현, 『慶州 錫杖寺址 博佛 研究』, 『미술사학연구』266, 한국미술사학회, 2010.
- 김은화, 『토함산 석굴의 제석천상과 범천상』, 『토함산 석굴 불상』, 한국미술사연구소, 2011.
- 임영애,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 \_\_\_\_\_,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37,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국외>

- 林南壽, 『伝橋夫人念持仏厨子』, 『法隆寺美術論争の視點』, グラフ社, 1998.
- 高田良信, 『法隆寺金銅佛の由來』, 『日本・韓國の古代佛教彫刻：金銅佛』, 東北電力株式會社, 1999.

Abstract

## Examination on the Validity of Records about the Foundation of Seokgulam in 『Samgukyusa』 from the Perspective of Art History

Han, Jung-Ho

This thesis examines critically the validity of Buddhist sculptures in Seokgulam as unified Silla's reference works of Buddhist art in the mid-8th century. The basic reason why Seokgulam's Buddhist sculptures are set up as unified Silla's reference works of Buddhist art in the mid-8th century is that they identified the records about the foundation of Bulguksa in 『Samgukyusa』 compiled at the end of the 13th century with the foundation of Seokgulam. However, the records about Seokgulam in 『Samgukyusa』 were written as grounded on <Hyangjeon> which even the compiler, Il Yeon, did not rely on as historical fact, 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it was figured out as a tale that was formed with Jeomchal religion in Goryeo as its background. In addition, <Bulguksaseoseoktapjungsugi> recently released records the period of founding Bulguksa with Cheonbo Wonnyeon (742) and presents a new ground with which we can advance the period of founding Seokgulam that has been identified with that of Bulguksa's foundation.

Unified Silla's Buddhist sculptures from the late 7th century till the early 8th century such as Chaeyusinjangsangjeon excavated from Sacheonwangsaji, Sacheonwangsang from Gameunsaji Seoktap Geumdongsarioeham, and Geumdongsamjonpanbul excavated from Wolji were developed with no significant time difference from the icons or expression patterns in China or Japan during the same period. With regard to that tendency,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matter that can be hardly acceptable that there was a big time difference in Seokgulam's sculptures of the mid-8th centur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search results of art history

circles about Seokgulam's Buddhist sculptur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so far, it has been commonly pointed out that compared with the Buddhist sculptures of China and Japan in the mid-8th century, the icons and patterns seem more conservative. But the concept of conservativeness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time of production is certain. When the records of Seokgulam's foundation in 『Samgukyusa』 and Seokgulam's sculpture patterns are approached separately, this study keenly states that there is possibility that Seokgulam sculptures' conservative tendency can be reinterpreted as a universal pattern of the time.

Key Words : Seokgulam, Bulguksa, Hyangjeon, Kim Daesung,  
Daeseonghyoisebumo

